

# 淋病에 관한 文獻的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李 聖 賢

## I. 緒 論

素問·靈蘭秘典論<sup>10)</sup>에서는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 能出矣”라 하였으며 素問·宣明五氣篇<sup>10)</sup>에 “膀胱不利爲癰 不約爲遺尿”라 하였는데 이는 膀胱의 機能이 尿의 貯藏과 排出에 있음을 말함이다.

醫家の 主張에 依하면 腎은 主之本이며 膀胱은 津液之府로 腎의 壯臟이 되어서 臟器의 水를 主管하는 것으로 臟腑에서 生하는 汚濁한 水를 모아서 外部로 排出한다. 즉 腎은 肺와 合作하여 水를 貯藏해서 津液을 만들어 臟腑에 供給하고 臟腑에서 흘러 나오는 濁水를 肺의 指揮하에 膀胱은 外部로 放出해서 臟의 清潔을 도모하고 充分한 津液을 貯藏해서 氣力을 確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膀胱의 氣機에 紊亂이 發生하면 膀胱濕熱證과 膀胱虛寒證이 發生하는 바 이들은 共通的으로 淋症과 같은 排尿障礙를 同伴하게 되는 것이다.<sup>2,3)</sup>

淋病의 淋字는 나무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形象을 描寫한 것으로 文獻上 淋, 淋家, 淋證, 淋泌, 淋濁 等の 用語와 混用하고 있으며 但, 日本文獻에서의 淋病은 淋疾(gonorrhoea)을 意味한다.<sup>2)</sup>

淋病은 小便이 淋瀝하고 澁痛하며, 排尿가 困難한 證으로 大개 頻尿, 尿急, 澁痛, 淋瀝不斷한 症 等を 特徵의인 症狀으로 하는 排尿障礙를 지칭하니 甚하면 小腹의 弦急, 引痛 等이 併發되기도 하여 淋病 或은 淋疾이라고도 한다.<sup>1,2,3,7)</sup>

淋病은 대부분 尿路系와 生殖系의 感染이나 尿路結石에 해당하는 것으로<sup>2,3)</sup> 大개 腎虛하여 膀胱에 熱이 蘊蓄되어 發하거나,<sup>7,8)</sup> 心腎氣鬱로 因하여 小腸 膀胱이 不利하여<sup>2,3)</sup> 或은 忿怒하거나 飲酒 或은 忍尿房勞 等으로 濕熱이 下焦로 流入하여 膀胱에 鬱結되어 야기되며<sup>2,3)</sup> 臨床的인 表現을 근거로 醫家에 따라서는 五淋이나 八淋으로 分類하였으니 五淋은 勞淋, 血淋, 熱淋, 氣淋, 石淋으로 여기에 膏淋, 砂淋, 冷淋을 더하면 八淋이 된다.

淋病의 特徵은 排尿時에 시원하지 못하고, 排尿時 陰莖에 痛症은 있으나 尿量에는 變化가 없는 것으로 解剖學的으로 下部 尿路疾患에 屬하는 것으로 이러한 疾患에 對한 문헌고찰을 하였던 바 몇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文獻資料

### 1. 黃帝內經素問<sup>10)</sup>

#### 1) 六元正氣大論

陽明司天之政, 初之氣, 小便黃赤, 甚則淋

#### 2) 至真要大論

諸轉反戾 水液渾濁 皆屬於熱

太陽之勝 陰中酒瘍 隱曲不利 互引陰股

#### 3) 痿論

思想無窮 所顯不得 意淫於外 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及爲白淫

4) 氣厥論

胞移熱膀胱 則癃溺血

5) 評熱病論

小便黃者 少復中有熱也

6) 玉機真臟論

冬脈不及 則令人少腹滿 小便變

7) 經脈別論

飲入於胃遊溢精氣 上輸於脾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  
時 五臟陰陽揆度 以為常也

2. 金櫃要略<sup>4,24)</sup>

- 1) 熱在下焦者 則尿血, 赤令淋秘不通
- 2) 淋已為病, 小便如粟狀, 小腹弦急, 痛引臍 中
- 3) 淋家不下發汗, 發汗則必便血

3. 中藏經<sup>22)</sup>

- 1) 諸淋者, 五藏不痛, 六腑不和, 三焦痺澁, 營衛耗失, 胃熱飲酒, 過醉入房, 竭散精神, 勞傷氣血...則有 冷,熱,氣,勞,膏,砂,虛,實之八種耳  
冷者, 小便數而色白如疝. 熱者,小便澁而赤色如血. 氣者, 臍腹滿悶, 小便不通利而痛.  
勞者, 小便淋瀝不絕, 如水滴漏而不斷絕. 膏者, 小便中出物如脂膏. 砂者, 臍?隱痛, 小便難, 其痛不可忍, 如小便中下如砂石之類, 有大如茆角子, 或赤 或白, 色澤不定, 此因腎氣弱, 貪於女色, 閉而不泄, 泄而不止, 虛傷真氣, 邪熱漸甚, 結聚成砂. 虛者,腎與膀胱俱虛, 精滑夢, 小便不禁者也. 實者為經格閉塞, 水道不利, 莖痛腿酸者也.

4. 巢氏諸病源候論<sup>7)</sup>

- 1) 諸淋者, 由腎虛而膀胱熱故也. 膀胱與腎為表裏, 俱主水, 水入小腸下於胞, 行於陰為洩便也. 腎氣痛於陰, 陰津液下流之道也.

若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則府藏不和, 致腎虛而膀胱熱也. 膀胱津液之府, 熱則津液內溢, 而流於辜, 水道不通, 水不上不下, 停積於胞, 腎虛則小便數, 膀胱熱則水不澁, 數而且澁, 則淋瀝不宣, 故謂之為淋. 其狀小便出少起數, 小腹弦急, 痛引於臍.

又有石淋, 勞淋, 血淋, 氣淋, 膏淋, 諸淋形證.

2) 石淋候

石淋者, 淋血出石也. 腎主水, 水結則化為石,故腎客沙石, 腎虛為熱所乘, 熱則成淋. 其病之狀, 小便則莖裏痛, 尿不能卒出, 痛引少腹, 膀胱裏急, 砂石從小便道出.

3) 氣淋候

氣淋者, 腎虛膀胱熱氣脹所為也. 膀胱合與腎為表裏, 膀胱熱, 熱氣流入於胞, 熱則生實, 令胞內氣脹則小腹滿, 腎虛不能制其小便, 故成淋. 其狀膀胱小便皆滿, 尿澁常有餘瀝是也.

4) 膏淋候

膏淋者, 淋而有肥, 狀似膏, 謂之膏淋, 亦曰肉淋, 此腎虛不能制於肥液, 故與小便俱出也.

5) 勞淋候

勞淋者, 謂勞傷腎氣血生熱成淋也... 其狀尿留莖內, 數起不出, 引小腹痛, 小便不利, 勞倦則發也.

6) 熱淋候

熱淋者, 三焦有熱, 氣搏於腎, 流入於胞而成淋也. 其狀小便赤澁, 亦有宿病淋, 令得熱而發者, 其熱甚則變尿血.

7) 血淋候

血淋者, 是熱淋之甚也. 則尿血, 謂之血淋, 心主血, 血之行身, 通編經絡, 循環府藏, 甚者則 散失其常經溢滲入胞, 而成血淋也.

8) 寒淋候

寒淋者, 其病狀, 先寒戰然後尿是也. 由腎氣虛弱, 下焦受於冷氣, 入胞與正氣交爭, 寒氣勝則戰寒而成淋, 正氣勝戰寒解, 故得小便也.

### 5. 三因方<sup>23)</sup>

淋은 古謂 痿이라 하였으나 名稱이 不同하여 痿은 罷요, 淋은 滴이다....古方은 모두 心腎氣鬱하여 小腸·膀胱이 不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冷淋, 濕淋, 熱淋 等은 外因에 屬한다. 上記한 心腎氣鬱과 憂驚恐思가 併合하여 發生하는 것은 內外因이오, 冷熱物을 飲慾하고 房室勞逸과 乘急忍尿하는 것 모두 이 疾患에 이르니 어찌 不內外因이 아니라 하겠는가... 諸淋은 五種이 있으니 冷·熱·膏·血·石淋이며 五種이 각기 不同하나 모두 氣를 本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이 淫情이 交錯으로 因하고, 內外因이 兼併되니 清濁이 相干하고 陰陽이 不順하며 結在下焦하니 淋閉가 된다.

### 6. 太平聖惠方<sup>8)</sup>

무릇 諸淋은 腎虛而膀胱熱한 까닭이다. 膀胱과 腎은 表裏關係이고 水를 主管하며 水는 小腸에 入하고 胞에 入하며 陰에 行하여 小便이 된다. 腎氣가 陰에 通하고 津液이 下流하는 道가 된다. 만약 飲食不節·喜怒無恒·虛實不調하면 臟腑不和하고 腎虛而膀胱熱하기에 이르니 膀胱은 津液之腑로 熱한즉 液이 內溢하고 水道不通하고 水가 不上不下하여 脬에 停積한다. 腎虛한즉 小便數하고 膀胱熱한즉 水火가 少하니 結局 小便이 數이澁하며 淋瀝不宜하기에 이르니 故로 淋이라 한다.

### 7. 外臺秘要<sup>12)</sup>

病源諸淋者 由腎虛而膀胱熱故也. 膀胱與腎爲表裏 俱主水 水入小腸 下於胞 行於陰爲溲便也. 腎氣通於陰 陰津液下流之道也. 若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則腑藏不和 致腎氣虛而膀胱熱也. 膀胱津液之腑熱則 津液內溢而流於壘 水道不通 水不上不下 停積於胞. 腎虛則小便數 膀胱熱則水下澁數 而且澁則淋瀝不宜故謂之淋. 其

狀小便出少起數 少腹弦急 痛引於臍. 又有石淋 勞淋血淋氣淋膏淋 .

### 8. 丹溪心法<sup>20)</sup>

淋雖有五 皆屬於熱 治宜解熱利水 以山梔子之類 不可發汗 汗出必便血. 又曰濁主濕熱 有痰有虛 赤屬血 白屬氣. 若調攝失宜 思慮不節 嗜慾過度 水火不交 精元失守 由是而爲赤白濁之患 赤濁是心虛有熱 因思慮得之 白濁腎虛有寒 過於淫慾而得之

- 1) 諸淋所發, 皆腎虛而膀胱生熱也.
- 2) 小腸有氣, 則小便脹, 小腸有血, 則小便澁, 小腸有熱, 則小便痛.
- 3) 并用流行滯氣, 疎利小便, 清解邪熱, 其于調平心火.
- 4) 心清則小便自利, 心平則血不妄行.

### 9. 普濟方<sup>21)</sup>

夫熱結下焦則爲溺血. 令人淋閉不痛. 此多是虛損之人. 服大散. 下焦結熱所爲. 亦有自然不焦熱者. 但自少. 可善候之.

凡氣淋之爲病. 石淋之爲病. 莖中痛. 溺不得卒出. 膏淋之爲病. 尿似膏自出. 勞淋之爲病. 勞倦卽發痛. 引氣衝下. 血淋之爲病. 熱卽發. 甚則尿血. 治之皆與血淋同. 凡人候鼻頭色黃. 小便難也.

醫經曰. 膀胱不利爲隆. 不約爲遺溺. 又云. 膀胱爲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人之有生. 將理失宜. 役用過度勞傷. 腎經藏熱. 熱留膀胱. 流入腑藏. 遂成淋病. 腎藏有寒. 寒積膀胱. 注于腑藏. 小便頻數. 或遺尿而不禁. 遂成淋病. 治之宜辨其寒熱. 熱者清利之. 寒者溫補之.

### 10. 萬病回春<sup>13)</sup>

五淋은 모두 膀胱蓄熱이다.

### 11. 醫學入門<sup>17)</sup>

五淋氣血石膏勞，渴不渴間差釐毫，清熱利便人人曉，開行滋破東垣高，小腸澁脹脾經濁，肝家莖脇刺如刀，腎虧惡證精敗竭，中虛總難利膀胱，痰飲轉脬何足異，吐提一法免呼號

### 12. 奇效良方<sup>6)</sup>

淋은 小便澀痛한 것인데 熱結膀胱하여 鬱結이 滲泄치 못하게 한 까닭이며 그 熱이 甚하여 腎肝에 客하고 陰分血이 熱을 受하게 된다. 下焦有熱이면 熱結膀胱하고 膀胱은 津液之腑이고 胞는 受納之司이므로 熱入膀胱하고 胞中外熱하고 陰絡內澁하니 不得小便하고 溺血한다.

### 13. 景岳全書<sup>19)</sup>

- 1) 淋之爲病，小便痛澁，滴瀝，欲去不去，欲止不止者是也。……有五淋之辨曰氣血石膏勞也。便濁證 有赤白之分 有精溺之辨 凡赤者多由於火 白者寒熱俱有之 由精而爲濁者 其動在心腎 由溺而爲濁者 其病在膀胱肝脾
- 2) 氣淋爲病，小便澁常有餘瀝。石淋莖中痛，溺如砂石，不得卒出，膏淋溺如膏出。勞淋勞倦則發痛引氣衝。血淋遇熱即發 甚則溺血。

### 14. 六科準繩<sup>11)</sup>

淋病之因，謂太作初氣，病中熱脹，脾受積之氣，小便黃赤，甚則淋，小腸作二氣，風火盃於上，主熱，其病淋。蓋五臟六腑十二經脈氣皆相通移，是故太陽主表，上行，則統諸陽之氣，下行則入膀胱。又肺者通調水道，下輸膀胱，脾胃消化水谷，或在表在上在中，凡有熱則水液皆熱，轉輸下行，然後膀胱得之而熱矣。且小腸是心之府，主熱者也。其水必自小腸滲入膀胱胞中，諸熱應乎心者，其小腸必熱，胞受其熱，經謂胞移熱於膀胱者，則痿溺血是也。人服金石藥者，入房太甚，則精流入

胞中，及飲食痰積流入者，則皆成淋

### 15. 醫宗必讀<sup>16)</sup>

若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臟腑不和 致腎虛而膀胱熱 腎虛則小便數 膀胱熱則水下澁數而且澁 則淋瀝不宜 小腹弦急 痛引于臍 分石淋 勞淋 血淋 氣淋 膏淋 冷淋六種

### 16. 證治指南<sup>9)</sup>

高粱厚味와 積熱은 陰을 傷하고, 房勞는 精을 竭하며 陰이 虛하면 熱이 生成되고 勞心虧耗하게 되니 水火不交하여 모두 능히 水府를 灼燥하고 津液을 煎烙하여 淋病을 만든다.

### 17. 證治彙補<sup>15)</sup>

高粱厚味가 鬱遏하여 疾患을 일으키는데 脾土가 害를 받게되어 精微를 능히 화하지 못하게 하고 清濁의 分別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肺金으로 하여금 도움이 없게 되어 水道가 不清하고 점차 淋病을 이루게 된다. 또한 勞心過度하고 房慾無節하여 水火不交한 상태에 이르니 心腎의 氣가 鬱滯되고 따라서 陰陽이 서로 昇格하여 清濁이 相干하고 下焦膀胱에 蓄積되니 水道가 澁하게 된다.

### 18. 類證治裁<sup>18)</sup>

腎에는 두개의 竅가 있는데 하나는 尿竅이고 다른 하나는 精竅이다. 淋症은 尿竅에서 나타나는데 病은 肝脾에 있다. 內經에서 淋이라 하는 것은 脾濕鬱熱에서 緣由한다고 했고 諸病源候論에서는 腎虛하여 小便이 頻數해 지고 膀胱熱하여 水火가 蓄해지니 小便이 澁하면서 또 蓄해지는 것이며, 淋瀝하고 引痛이 있다고 하였다.

### 19. 東醫寶鑑<sup>25)</sup>

心腎氣鬱하고 蓄在下焦하여 膀胱裏急하고 膏血砂石이 小便道를 쫓아 出한다. 淋症은 모두 熱에 屬하나 間或 冷에 屬하는 것이 있다. 心腎氣鬱하고 小腸膀胱不利하거나 忿怒 房勞 忍尿 酒肉 濕熱下流하고 肝經에 干하며 挺孔 鬱結하는데서 연유된다.

初期에는 熱淋 血淋이지만 오래되면 砂石淋이 된다. 五淋은 膀胱蓄熱이다. 諸淋은 모두 熱에 屬하고 비록 冷淋이 있으나 대개 千百에 하나 정도이다. 淋證은 비록 五種이나 모두 熱에 屬한다.

### 20. 醫門要鑑<sup>13)</sup>

- 1) 淋病의 脈은 細數하니 어찌 꺼리끼리요? 少陰脈이 微한것은 氣閉膀胱이니 女人에게서 이것을 보면 陰中에 瘡이 생긴다. 大實한 것은 쉽게 낮고 虛嚮한 것은 죽는다.
- 2) 氣淋이란 것은 小便이 澀하고 언제나 餘瀝이 있다. 沙淋이란 것은 莖中이 痛하고 努力함이 砂石과 같다. 血淋이란 것은 尿血의 結熱로서 莖痛이며, 膏淋이란 것은 小便이 膏藥과 같이 나오는 것이고, 勞淋이란 것은 勞倦하면 곧 發하는 것이다.
- 3) 五淋은 모두 膀胱의 蓄熱인 것이다.

### 21. 診療要鑑<sup>1)</sup>

小便이 淋瀝하고 澀痛하며, 마렵지만 나오지 않는 證狀이 頻數하며, 甚하면 小腹의 弦急 引痛 等證을 發하는 것을 淋病 혹은 淋疾이라 한다.

病因: 淋病은 大概 腎虛하여 膀胱에 熱이 蘊蓄되어 發하며, 或은 心腎氣鬱로 因하여 小腸膀胱이 不利하며, 或은 忿怒하거나 飲酒 或은 忍尿 房勞 等으로 濕熱이 下焦로 流入하여, 膀胱에 鬱結하므로, 小便이 凝集成濁하며 血膏

砂石 등이 形成되어 尿道가 阻塞 不利하므로 澀痛하며, 欲出不出하고 甚하면 小腹 膀胱이 脹痛한다.

證法: 大概 清熱 利尿를 爲主하며, 腎水가 枯竭 極虛한 者를 除하고는 補劑를 禁忌하는바, 大概 氣는 補하면 尤脹하고, 血은 補하면 澀해지고, 熱은 補하면 尤盛하여 水道가 不行하며 殺道를 閉塞하게 되므로 補를 忌하는 것이다. 腎氣가 極虛한 淋病에는 補腎補精을 爲主하고, 兼하여 利尿를 시킬 것이며, 利尿劑만 獨用하지 말 것이다. 熱로 因한 淋病에는 四物湯(方在血門)에 甘草梢 虎杖根 木通 桃仁 滑石 木香 등을 加한 煎水에 滋腎丸을 吞下한다.

#### (1) 勞淋

證治: 勞役의 過度時나 房勞後에 發하는바, 小便이 不出하고, 澀痛하며, 陰重하고, 小腹이 引痛하며, 氣衝(穴名)과 尻臀部를 引痛하고, 勞役하면 尤痛하는 것인데, 補中益氣湯(方在內傷)에 車前子 澤瀉 木香 檳榔을 加해 쓴다.

慾情을 強留不泄하여 淫精水가 滲下해서 成淋 澀痛할 때는 益元固眞湯을 쓴다.

#### (2) 血淋

證治: 小便이 不出하며, 時時로 出血澀痛하고 甚하면 小腹이 滿急하며, 熱을 만나면 甚한 境遇 尿血 熱結하고 莖痛하는 것인데, 治法은 增味導赤散을 쓰되, 血虛人에게는 四物湯(方在血門)에 赤茯苓 澤瀉 知母 黃柏을 加해 쓴다.

#### (3) 熱淋

證治: 小便이 赤色이고, 淋瀝不快하며, 尿道가 熱澀하고, 臍下가 急痛한다. 熱淋에는 八正散에 木香 檳榔을 加해 쓴다.

#### (4) 氣淋

證治: 小便이 澀滯不快하여 放尿後에 餘瀝이 不盡하며, 小腹이 脹滿한다. 氣淋에는 沈香散을 쓰되, 氣虛人에게는 補中益氣湯(方在內傷)에 車前子 澤瀉 木香 檳榔을 加해 쓰고, 血虛人에게는 八物湯(方在虛勞)에 黃耆 虎杖根 黃芩 牛膝을 加해 쓴다.

#### (5) 石淋

原因: 腎·膀胱에 蘊蓄된 熱이, 津液을 煎하므로 凝結하여, 輕하면 砂塊가 되고, 重하면 石塊를 形成한다.

證治: 小腹의 一方 或은 兩方이 刺裂하는 것 같이 急痛하며 或은 腰部를 引痛하고, 甚하면 血尿가 排出되며, 排尿할 수 없고 痛甚하다가 尿道로 砂石이 努力排出되기도 한다. 砂淋은 散塊 排出이 比較的 容易하나, 石淋은 結塊가 堅硬하므로, 消散이 極難한 것이다. 石淋에는 滑石散 鵬砂散을 쓴다.

#### (6) 砂淋

證治: 小便이 澀滯窒塞하여 陰莖中이 澀痛하다가 凝脂된 砂塊가 排出되면, 尿順止痛되는 것이 砂淋이다. 砂淋에는 二神散 琥珀散을 쓴다.

#### (7) 膏淋

證治: 小便이 濁하여 脂膏와 같이 浮凝하며, 陰莖中이 澀痛한다. 膏淋에는 鹿角霜丸 海金沙散을 쓴다.

#### (8) 冷淋

모든 淋病은 熱로 因한 것이며, 冷淋은 千百中에서 一名도 極稀한 것이다.

證治: 證狀은 每發時에 必히 먼저 寒慄後에 小便이 澀數排出되며, 陰莖中이 腫痛하기도 한다. 大概 冷氣가 正氣와 交爭하므로, 冷氣가 勝하면 寒慄成淋하고, 正氣가 勝하면 寒慄이 解消되고, 便尿가 通利하는 것이다.

治法: 冷淋에는 木香湯을 쓰며, 腎氣가 不足하면 八味元(方在虛勞)에 木通 車前子 木香 檳榔을 加해 쓴다.

諸淋通治藥: 通治藥으로는 鬱金黃連丸 三因琥珀散 石韋散 五淋散 通草湯等を 쓴다.

### Ⅲ. 總括 및 考察

淋證은 頻尿, 尿急, 澀痛 등의 淋瀝不斷한 諸症 즉, 排尿障礙와 膀胱刺戟症狀이 나타나는 症候로써 西洋醫學의 尿路, 膀胱刺戟症狀을 갖는 泌尿系와 生殖系의 感染이나 結石等 - 腎

盂腎炎, 膀胱炎, 尿道炎, 膀胱周圍炎, 前立腺炎, 前立腺膿瘍, 泌尿系結石 -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2,3)</sup> 즉, 淋病이란 小便의 排尿가 시원하지 못하며 排尿時 陰莖에 痛症은 있으나 尿量에는 變化가 없는 것으로 醫家에 따라 淋症, 淋證 或은 淋家라 하며, 淋病은 解剖學的으로 下部 尿路疾患에 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sup>

그 病因을 살펴보면 金匱要略<sup>4,24)</sup>에서는 “熱在下焦”라 하였고, 中藏經<sup>22)</sup>에서는 “諸淋者, 五藏不痛, 六腑不和, 三焦痺澀, 營衛耗失, 胃熱飲酒, 過醉入房, 竭散精神, 勞傷氣血”을 주장하였으며, 丹溪心法에서는 “熱有五皆屬乎熱”, 三因方에서는 “冷淋熱淋濕淋 等 屬外所因 … 夫憂驚恐思則內所因 況陰淡冷熱 房室勞逸 … 不內外因”을, 그리고 諸病源候論과 外臺秘要<sup>12)</sup>에서는 “諸淋者 于腎虛而膀胱熱故也”라 하여 腎虛와 膀胱熱을 強調하였으며, 普濟方<sup>21)</sup>에서는 “人之有生. 將理失宜. 役用過度勞傷. 腎經藏熱. 熱留膀胱. 流入腑藏. 遂成淋病. 腎藏有寒. 寒積膀胱. 注于腑藏. 小便頻數. 或遺尿而不禁. 遂成淋病”이라 하여 腎臟·膀胱의 寒熱을 그 原因으로 제시하였고, 萬病回春<sup>13)</sup>에서는 “五淋은 모두 膀胱蓄熱”이라 하였다. 奇效良方<sup>6)</sup>에서는 “淋은 小便澀痛한 것인데 熱結膀胱하여 鬱結이 滲泄치 못하게 한 까닭”으로 보았으며, 景岳全書<sup>19)</sup>에서는 “淋之初病 則無不由乎熱 … 又有淋久不止 及痛澀皆去而膏液不已 淋如白濁者 此憊中氣下陷及命門不固之證也”이라 하여 中氣下陷과 命門不固의 새로운 病因을 提示하였고, 醫宗必讀<sup>16)</sup>에서는 “若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臟腑不和 致腎虛而膀胱熱”이라 腎虛而膀胱熱한 것이 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臟腑不和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證治指南<sup>9)</sup>과 證治彙補<sup>15)</sup>에서는 高粱厚味와 積熱은 陰을 傷하고, 房勞는 精을 竭하며 陰이 虛하면 熱이 生成되고 勞心虧耗하게 되니 水火不交하여 모두 능히 水府를 灼燥하고 津液을 煎烙하여 淋病을 만든다”라고 하여 高粱厚

味와 積熱 및 房勞, 勞心虧耗 등을 새로운 病因으로 提示하였다. 이들을 종합하면 大概 淋病은 1) 腎虛하여 膀胱에 熱邪가 蘊蓄되어(腎氣虛虧, 膀胱濕熱) 發生하거나 2) 性交後에 毒氣가 肝經으로 流入되어 熱結되어(肝氣鬱滯, 血脈瘀阻) 나타나거나 3) 心腎氣鬱로 因하여 小腸·膀胱이 不利하여(氣機阻塞) 發症됨을 알 수 있다.

淋病의 症狀은 歷代 醫家들의 主張이 거의 同一한데, 黃帝內經<sup>10)</sup>의 氣厥論에서 '胞移熱膀胱 則癢溺血'라 하였듯이 小便不利가 淋病의 주된 症狀임을 알 수 있으며, 外臺秘要<sup>12)</sup>의 '腎虛則小便數 膀胱熱則水下澁數 而且澁則淋瀝 瀝不宣故謂之淋 其狀小便出少起數 少腹弦急 痛引於臍'라는 內容에서 排尿 횟수가 頻繁하며, 痛症을 隋伴함을 알 수 있고, 이는 景岳全書<sup>19)</sup>에서 밝힌 '淋之爲病 小便如粟狀 小腹弦急 痛引臍中'에서도 다시 확인 된다. 以上の 내용을 綜合하여 보면 淋病은 小便不利, 小便頻數, 排尿痛의 症狀을 隋伴하는 疾病이라 하겠으나, 杜<sup>3)</sup>는 이를 淋病의 特徵은 排尿時에 시원하지 못하고 排尿時 陰莖에 痛症은 있으나 尿量에는 變化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症 狀	文 獻
小便如粟狀 小腹弦急 痛引臍中	金匱要略 <sup>4)</sup>
小便出少起數 小腹弦急 痛引於臍 ---水下澁數 淋瀝不宣	諸病源候論 <sup>7)</sup>
小便淋瀝 欲去不去 不去又來---膀胱裏急 膏血砂石 從小便道出 欲出不出 淋瀝不斷之狀 甚者 窒塞其間 則 令人悶絕	丹溪心法 <sup>20)</sup> 普濟方 <sup>21)</sup>
小便數而澁 小腹痛引臍中	奇效良方 <sup>6)</sup>
小便澁痛 欲去不去 不去又來 滴瀝不斷	醫學入門 <sup>17)</sup>

淋病의 病機는 內經 素問 至眞要大論<sup>10)</sup>에서 '水液渾濁 皆屬於熱'이라고 밝혔듯이 그 基本의 內 病因을 熱로 보았음을 알 수 있겠다. 또

한 丹溪가 丹溪心法<sup>20)</sup>에서 '淋雖有五 皆屬於熱 治宜解熱利水 以山梔子之類'라고 하였고, 李梴이 醫學入門<sup>17)</sup>에서 '清熱利便人人曉'라 하여 모든 淋病이 熱에 屬함을 밝혔다.

또한 淋病에는 반드시 虛證이 있음을 주장한 醫家들이 있는데 巢元方<sup>7)</sup>과 王燾가 그들로서 外臺秘要<sup>12)</sup>에 보면 '病源諸淋者 由腎虛而膀胱熱故也'라 했고, 內經<sup>10)</sup>에 '中氣不足溲便爲之變'이라 하여 역시 虛證이 있음을 볼 수 있다. 外臺秘要<sup>12)</sup> 등에 보면 '腎與膀胱 相爲表裏 腎陰虧損 膀胱蓄熱'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醫家들의 公同적인 意見임을 알 수 있다.

內經<sup>10)</sup>에 보면 '思想無窮 所願不得 意淫於外 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及爲白淫'라 하여 七情과 房室에 起因하여 淋病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外臺秘要<sup>12)</sup>에 보면 '若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則腑藏不和 致腎氣虛而膀胱熱也'라 하여 內傷으로 인해 淋病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丹溪<sup>20)</sup>는 이 밖에 '又曰濁主濕熱 有痰 有虛'라고 하여 濕痰에 관한 언급도 하고 있다.

景岳<sup>19)</sup>은 '便濁證 有赤白之分 有精溺之辨 凡赤者多由於火 白者寒熱俱有之'라 하였는데 淋病의 病因이 寒도 있다고 하여 독특한 見解를 보인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東醫寶鑑<sup>25)</sup>에서 寒으로 인한 淋病은 千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以上の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淋病의 病機는 醫宗必讀<sup>16)</sup>의 '若飲食不節 喜怒不時 虛實不調 臟腑不和 致腎虛而膀胱熱 腎虛則小便數 膀胱熱則水下澁 數而且澁 則淋瀝不宣 小腹弦急 痛引于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보이는데, 즉 內傷과 七情 등으로 인하여 臟腑가 不和하여 腎虛와 膀胱熱에 이르게 되고 腎虛하면 小便이 數하고 膀胱이 熱하면 小便이 澁하여져서 淋病은 頻尿와 澁痛을 그 症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淋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大綱은 病機가 熱이라는 점에서 丹溪<sup>20</sup>가 말한 '解熱利水'와 李樾<sup>17</sup>이 말한 '清熱利便'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治法은 仲景<sup>19</sup>이 주장한 '淋病不可發汗發汗則必便血'이다. 이는 淋病을 가진 사람은 小便이 淋瀝하니 過度한 汗을 내게 하면 精道의 熱이 水分의 缺乏으로 인해 迫血하여 尿血함을 말한 것이다.

또 하나의 주장은 東垣이 말한 '淋證當分在氣在血以治之 以渴與不渴爲辨 如渴而小便不利熱在上焦氣分 肺金主之 不渴而小便不利者 結在下焦血分 腎與膀胱主之'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渴症의 有無에 따라 治法을 달리 하는 것인데, 醫學入門<sup>17</sup>에서는 이것이 별 差異가 없다고 주장했다.

景岳全書<sup>19</sup>에 와서는 큰 變化를 보이는데 '便濁證 有赤白之分 有精溺之辨 凡赤者多由於火 白者寒熱俱有之'라 하여 赤白과 精溺의 辨證을 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에 따라 '由精而爲濁者 其動在心腎 由溺而爲濁者 其病在膀胱肝脾'라 하여 病機를 설명했다.

그러나 淋病의 治療은 무엇보다 種類에 따라 行해져야 한다는 것이 定說이다.

淋病의 種類에 대해서는 醫家들마다 조금씩의 差異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五淋이나 八淋으로 分類하였는데 中藏經<sup>22</sup>에서는 八淋 卽, (1)冷者 小便數而色白如疝 (2)熱者 小便數而赤色如血 (3)氣者 臍腹滿悶 小便不通利而痛 (4)勞者 小便淋瀝不絕 如水滴病而不斷絕 (5)膏者 小便中出物如脂膏 (6)砂者 臍腹隱痛 小便難 其痛不可忍 如小便中下如沙石之類 (7)虛者 腎與膀胱久虛 精滑小便不禁者也 (8)實者 爲經絡閉塞 水道不利 莖中腿酸者也로 分類하였고, 諸病源候論<sup>7</sup>에서는 七淋 卽, (1)石淋侯: 石淋者 淋血出石也 腎主水 水結則化爲石 ... 其病之狀 小便則莖裡痛 尿不能卒出 痛引小腹 膀胱裡急 沙石從小便道出 (2)氣淋侯: 氣淋者 腎虛膀胱熱氣

脹所爲也 ... 其狀膀胱小便皆滿 尿澁常有餘瀝是也 (3)膏淋侯: 膏淋者 淋而有肥 狀似膏 謂之膏淋 (4)勞淋侯: 勞淋者 謂勞傷腎氣血主熱 成淋也 ... 其狀尿留莖內 數起不出 引小腹痛 小便不利 勞倦則發也 (5)熱淋侯: 熱淋者 三焦有熱 氣搏於腎 流入於胞而成淋也 其狀小便赤澁 ... 其熱甚則變尿血 (6)血淋侯: 血淋者 是熱淋之甚也 (7)寒淋侯: 寒淋者 其病狀 先寒戰然後尿是也由腎氣虛弱 下焦受於冷氣 入胞與正氣交爭 寒氣勝則戰寒而成淋 正氣勝戰寒解로 分類하였으며, 景岳全書<sup>19</sup>에서는 五淋 卽, 氣淋, 石淋, 血淋, 膏淋, 勞淋으로, 醫宗必讀에서는 六淋 卽, 石淋, 勞淋, 血淋, 氣淋, 膏淋, 冷淋으로 또한 東醫寶鑑<sup>22</sup>에서는 八淋과 五淋으로 나누었는데 八淋은 勞淋, 血淋, 熱淋, 氣淋, 石淋, 膏淋, 沙淋, 冷淋이며, 五淋은 勞淋, 血淋, 熱淋, 氣淋, 石淋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冷淋이 後代에 와서 添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淋病의 病因이 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이한 사실이다. 그리고 東醫寶鑑<sup>25</sup>에서는 石淋 외에 沙淋을 따로 표현해 놓은 점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의 特徵症狀은 小便頻急, 淋瀝澁痛, 小腹拘急, 痛引腰腹 等이며 八淋에 對한 醫家들의 설명을 總括하면 다음과 같다.

### 1. 血 淋

血淋은 小便이 淋瀝하고 澁痛하며, 尿色이 紅赤色이며 或 紫暗血塊를 띤다. 또한 排尿가 不利하여 時時로 出血澁痛하고, 甚하면 小腹이 滿急하며 臍腹이 脹기고, 灼熱痛을 호소한다.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血淋은 2種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1)膀胱頸部나 尿道의 出血로 出血性 膀胱炎, 出血性 尿道炎이거나 (2)精道인 前立腺의 出血로 볼 수 있다. 治法은 清熱通淋, 涼血止血하며, 治方으로는 增味導赤散, 小芥飲子를 通治方으로 하고 虛證일때는 歸脾



湯, 補中益氣湯을 實證일때는 導赤散, 八正散 加味方을 사용한다.

原因 및 症狀	文 獻
心主血 血之行身 通遍經絡 循環臟腑 其熱甚者 則失其常 經溢滲入胞 熱淋之甚者 則尿血	諸病源候論 <sup>7)</sup>
遇熱則發 甚則溺血 小便不出 時下血疼痛 滿急	普濟方 <sup>21)</sup>
尿血結熱 莖痛	萬病回春 <sup>13)</sup>

## 2. 熱 淋

排尿時에 灼熱刺痛하며, 痛引臍中하며 小便의 色이 黃赤色이고, 小便이 頻數点滴而下한다. 또 舌苔는 黃膩하고 脈은 濡數하다. 特徵的으로 發熱, 惡寒, 四肢酸痛 等の 全身症狀이 나타난다.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보면 泌尿.生殖系의 急性炎症으로 볼 수 있는 바, 急性腎盂腎炎, 急性前立腺炎, 膀胱周圍炎 等を 포함하는 病證으로 볼 수 있다. 治法으로는 痛淋除濕, 清熱解毒하고, 治方으로는 清心連子湯, 八正散을 通治方으로하며, 萬全木通散, 益元散 等도 사용한다.

原因 및 症狀	文 獻
三焦有熱 氣搏於腎 流入於胞 小便赤澁 赤有宿病淋 今得熱而發 其甚則 變尿血亦有小便後 如似小豆汁 狀 蓄作有時	諸病源候論 <sup>7)</sup>
小便赤色 淋瀝不快 臍下急痛	普濟方 <sup>21)</sup>

## 3. 膏 淋

小便이 混濁不清하여 米甘과 같고, 或 위로 뜨는 것은 脂膏와 같으며, 尿道가 熱澁하며 疼痛하며 小便이 不暢하다. 病症이 尿道가 熱澁하면서 疼痛하는 것은 實證에 屬하며, 不熱不痛하는 것은 虛證에 屬한다.

서양의학적 측면으로 보면 淋菌性 或은 非淋菌性 尿道炎, 慢性前立腺炎, 前立腺膿瘍 等を 포함하는 病證이다. 治法은 實證엔 清熱除濕하고, 虛證엔 補腎固澁하며, 治方은 實證엔 龍膽瀉肝湯 虛證엔 六味地黃丸 加味方을 사용한다.

原因 및 症狀	文 獻
腎虛不能制約肥液 淋而有肥 狀似膏	諸病源候論 <sup>7)</sup>
陰陽不調 勞倦所致	太平聖惠方 <sup>8)</sup>
尿似膏自出 小腹膀胱裏急	外臺秘要 <sup>12)</sup>
小便如米泔 或有如鼻涕之狀 此乃精尿俱出 精塞發道 故便欲出 不能而痛	醫宗必讀 <sup>16)</sup>
小便淋瀝不絕 如水之滴漏而不斷 絕	華陀中藏經 <sup>22)</sup>
尿留莖內 數起不出 引少腹痛 小便不利 勞倦即發	巢氏諸病源候論 <sup>7)</sup>
小便淋瀝 水道澁痛 勞即發 少腹尿留於莖內 數起不出 引痛	普濟方 <sup>21)</sup>
痛引氣衝 勞即發 痛墮急尻	醫學入門 <sup>17)</sup>
勞倦即發 痛引氣衝	萬病回春 <sup>13)</sup>
勞倦即發 痛引氣衝	奇效良方 <sup>6)</sup>
勞倦虛損 小便不出 少腹急痛 遇勞即發 痛引氣衝	東醫寶鑑 <sup>25)</sup>
勞倦即發 痛引氣衝	景岳全書 <sup>19)</sup>
遇勞即發 痛引氣衝 又名虛淋	證治彙輔 <sup>15)</sup>
病程較長 綿綿難癒 時輕時重 遇勞加重或誘發 尿液赤澁不甚 腰痛不著 淋瀝不已 餘瀝難盡 不耐勞瀉 苔薄脈細	實用中醫內科學 <sup>5)</sup>

## 4. 氣 淋

排尿가 澁滯不快하여 放尿後에도 餘瀝이 未盡하며 小腹이 脹滿하는 것으로 이는 膀胱頸部의 閉塞이나 收縮, 神經因性 膀胱, 或은 尿道의 狹窄 等으로 排尿障病가 유발되는 것으로 膀胱에 殘尿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治法은 實證은 理氣和血.通淋利尿, 虛證엔 補中健脾, 益氣升陷시키며 治方으로는 沈香散 等を 사용한다.

原因 및 症狀	文 獻
腎虛膀胱熱 膀胱小腹皆滿 尿澁 常有餘瀝	諸病源候論 <sup>7)</sup>
肺主氣 氣化不及 洲都 胞中氣脹	醫宗必讀 <sup>16)</sup>
小腹滿急 尿後常有餘瀝 出少頻數	普濟方 <sup>21)</sup>
臍腹滿悶 小便不通而痛	中藏經 <sup>22)</sup>

### 5. 勞 淋

勞役의 과도시나 房勞後에 發하는 바, 小便이 不出하고, 澁痛하며, 陰重하고, 小腹이 引痛하며 勞役하면 尤甚하는 것인데, 이는 女性의 尿道炎이나 慢性 前立腺炎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治法은 補氣, 補腎通淋하며 治方은 補中益氣湯加味方을 사용한다.

原 因	文 獻
勞傷腎氣而 生熱成淋	巢氏諸病源候論 <sup>7)</sup>
勞傷腎經 腎虛膀胱有熱 氣不傳化	普濟方 <sup>21)</sup>
勞倦而成 多屬脾虛 勞淋有脾勞 腎勞之分 多思慮 多虛 負重遠行 應酬分擾 勞于脾也 .....若強力入房 或施泄無度 勞于腎也	醫宗必讀 <sup>16)</sup>
勞倦即發....又名虛淋	證治彙輔 <sup>15)</sup>
思慮煩擾 負重遠行 勞于脾. 強力入房 勞于腎	類證治裁 <sup>18)</sup>
勞役過多 房勞後 欲情強留不泄	診療要鑑 <sup>1)</sup>
心勞 脾勞 腎勞...淋症日久 或病程反復 邪氣傷精; 或過用苦寒清利 損傷正氣.....房勞傷腎 思慮勞倦傷心脾	實用中醫內科學 <sup>5)</sup>

### 6. 冷 淋

冷淋은 매우 드문 病症으로 症狀은 每發時에 必히 먼저 寒慄後에 小便이 澁數排出되며, 陰莖中이 腫痛하기도 하는 것으로 女性에만 주로 나타나며 木香湯 等を 사용한다.

原因 및 症狀	文 獻
腎氣虛弱 下焦受於冷氣入胞 與正氣交爭 先寒戰 然後尿	諸病源候論 <sup>7)</sup>
臟腑虛冷	太平聖惠方 <sup>8)</sup>
寒客下焦 水道不快	醫宗必讀 <sup>16)</sup>
必先寒戰而後 溲尿澁數 發中疼痛	醫學入門 <sup>17)</sup>
淋瀝而白 發汗慄而後 便數成淋 小便閉澁 數起不 發中苦痛 憎寒凜凜	證治彙輔 <sup>15)</sup>

### 7. 石 淋(砂淋)

石淋과 砂淋은 結石으로 誘發되는 病證인데 結石의 크기에 따라 큰 것은 石淋, 작은 것은 砂淋이라 칭하나, 크기의 기준이 모호하여 同一病證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 주요 症狀은 排尿困難, 疼痛, 血尿 等인데 治法은 滌除砂石, 通淋利尿시키며 治方은 石葦散, 蟬蔥散, 五積散 等を 응용한다.

原因 및 症狀	文 獻
腎虛爲熱所勝 小便卽莖裏痛 尿不能卒出 痛引小腹 膀胱裏急 砂石從小便道出 甚者塞痛 令悶絕	諸病源候論 <sup>7)</sup>
腎氣弱 貧於女色 閉而不泄 泄而不止 虛傷真氣 邪熱漸深 結成砂	中藏經 <sup>22)</sup>
結成沙石 隨小便而下 其大者 留凝水道之間 痛引小腹 膀胱裏急 令人悶痛絕	普濟方 <sup>21)</sup>

## IV. 結 論

1. 淋病은 頻尿, 尿急, 排尿障礙 或은 澁痛, 淋瀝不斷한 證候를 말하며, 熱淋, 血淋, 氣淋, 石(砂)淋, 勞淋, 膏淋, 冷淋으로 分類한다.
2. 淋病은 西洋醫學에서 膀胱. 尿路刺戟症狀을 갖는 泌尿, 生殖系의 感染이나 結石等を

包含하는 概念인데 解剖學的으로는 下部 尿路疾患에 屬하는 것으로 1) 血淋은 膀胱 頸部나 尿道의 出血로 出血性 膀胱炎, 尿道炎과 前立腺의 出血과 2) 熱淋은 泌尿 生殖系의 急性炎症인 急性腎盂腎炎, 急性 前立腺炎, 膀胱周圍炎 等과 3) 膏淋은 淋菌 性 或은 非淋菌性 尿道炎, 慢性前立腺炎, 前立腺膿瘍 等과 4) 氣淋은 膀胱頸部の 閉塞이나 收縮, 神經因性膀胱 或은 尿道의 狹窄 等과 5) 勞淋은 女性의 尿道炎이나 慢性 前立腺炎과 6) 石淋(砂淋)은 尿路結 石과 類似한 病證이다.

3. 淋病의 病因은 1)腎虛而膀胱濕熱壅滯 2)肝 氣鬱結而血脈瘀阻 3)心腎氣鬱而氣機阻塞 等으로 나눌 수 있다.
4. 淋病의 共同症狀은 小便頻急, 淋瀝澁痛, 小 腹拘急, 痛引腰腹 等이며, 각각의 種類에 따라 特徵的인 症狀을 隨伴한다.
5. 淋病의 治法은
  - 1) 血淋 - 清熱通淋, 涼血止血
  - 2) 熱淋 - 通淋除濕, 清熱解毒
  - 3) 膏淋 - 實: 清熱除濕, 虛: 補腎固澀
  - 4) 氣淋 - 實: 理氣和血, 通淋利尿  
虛: 補中健脾益氣升陷
  - 5) 勞淋 - 補氣, 補腎通淋
  - 6) 石淋 - 滌除砂石, 通淋利尿시키는 治法 을 사용한다.

淋病에 사용하는 方劑로는 虛證에 補中益氣 湯, 六味地黃湯을 實證에 導赤散, 八正散, 五積 散 等을 사용한다.

## V. 參考文獻

1. 金定濟著: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p.268-269, 1974.
2. 杜鎬京著: 東醫腎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 研究院出版部, pp.255-262, 1987.
3. 杜鎬京著: 東醫醫學研究, 서울, 東醫腎系研 究會, pp.69-80, 1987.
4. 朴憲在著: 完決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pp 268-269, 1978
5. 方藥中外: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 技術出版社, pp.276-285, 1986.
6. 方賢: 奇效良方(二), Hong Kong, 商務印 書館, p.690, 1977
7. 巢元方著: 諸病源候論, 臺北, 昭人出版社, pp.8-10, 1987.
8. 宋太宗命 撰: 太平聖惠方,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pp.1784-1796, 1981
9. 徐大椿: 證治指南,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 科大學 原典教室, p.158, 1974
10. 楊維傑譯解: 黃帝內經素問譯解, 臺北, 藥君 出版業有限公司, pp.582, 1978.
11. 王肯堂: 六科準繩,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pp.401-403, 1979.
12. 王 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726-735, 1982.
13. 龔廷賢: 萬病回春, Hong Kong, 醫林書局, p. 243, 1982
14. 龔廷賢著·朱甲直譯: 醫門要鑑, 서울, 癸丑文 化社, pp.480-484, 1977.
15. 李用粹: 證治彙補, 서울, 日新文化社, p.455, 1983
16. 李中梓: 醫宗必讀, 서울, 一中社, 1991, pp.259-267
17. 李 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p.386-387,390-391
18. 林佩琴: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pp.448 -449, 1970
19. 張景岳著: 景岳全書,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pp.506,507, 1980.
20. 朱丹溪著: 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星文化 社, pp.436-443, 1982.
21. 朱 橐著: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20-321, 1983.
22.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서울, 成補社, pp.1035-1098, 1983.
23. 陣言: 陳無擇三因方(券十二), 臺北, 臺聯國 風出版社, p.6, 1978
24. 蔡仁植譯: 金匱要略精解, 서울, 東洋綜合通 信大學教育部, pp.93,121, 1974.
2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174-175, 1983